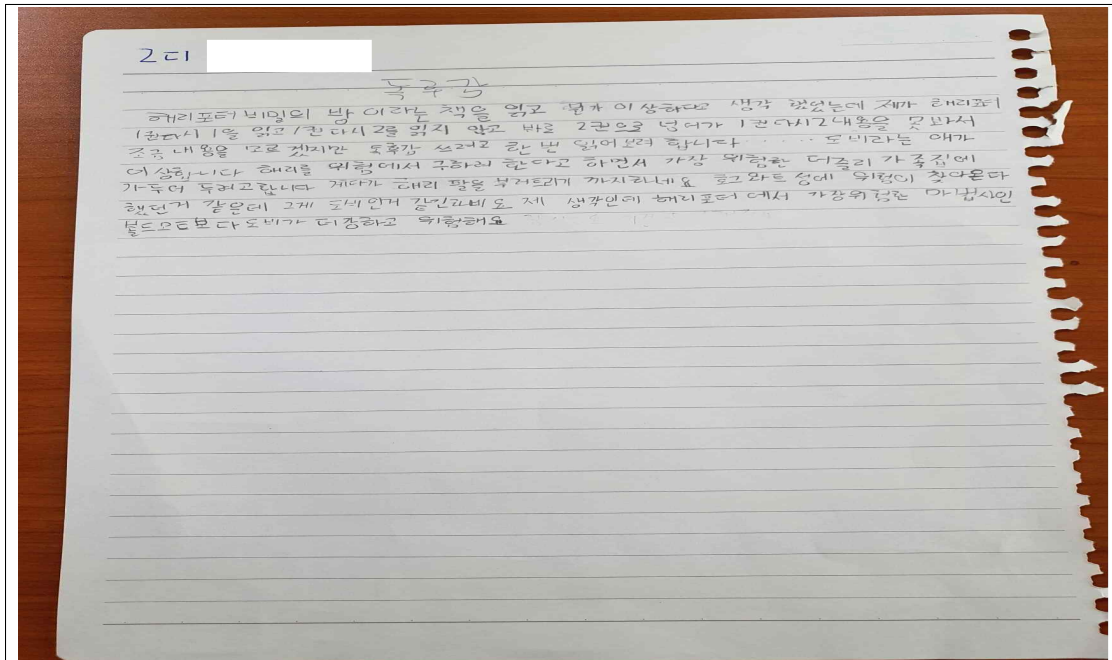


9월 독서의 달 독후감 제출 날짜순



독후감: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읽고

스마트 드론 전자과 2학년 1반 번
김 한

해리포터 비밀의 방이라는 책을 읽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해리포터 1권-1을 읽고 1권-2를 읽지 않고 바로 2권으로 넘어가 1권-2 내용을
못 봐서 조금 내용을 모르겠지만 독후감 쓰려고 한번 읽어 보려 합니다....

도비라는 애가 이상합니다. 해리를 위험에서 구하려 한다고 하면서
가장 위험한 더즐리 가족 집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게다가 해리 팔을 부러트리기까지
하네요. 호그와트 성에 위험이 찾아온다, 했던 거 같은데 그게 도비인 거 같긴 하네요.
제 생각인데 해리포터에서 가장 위험한 마법사인 볼드모트보다 도비가 더 강하고
위험해요.

독후감: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읽고

어렸을 적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리포터의 판타지 마법과 화려하고 환상적인 볼거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학교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를 떠올리며 책을 집어 들었고 빌리려고 했는데 사서 선생님이 이번에 독후감 이벤트에 참가해 보라고 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독후감을 써 본 적이 많지 않았기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학교 도서관 이벤트 상품을 받고 싶은 게 계기가 되어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주인공인 해리는 현 세상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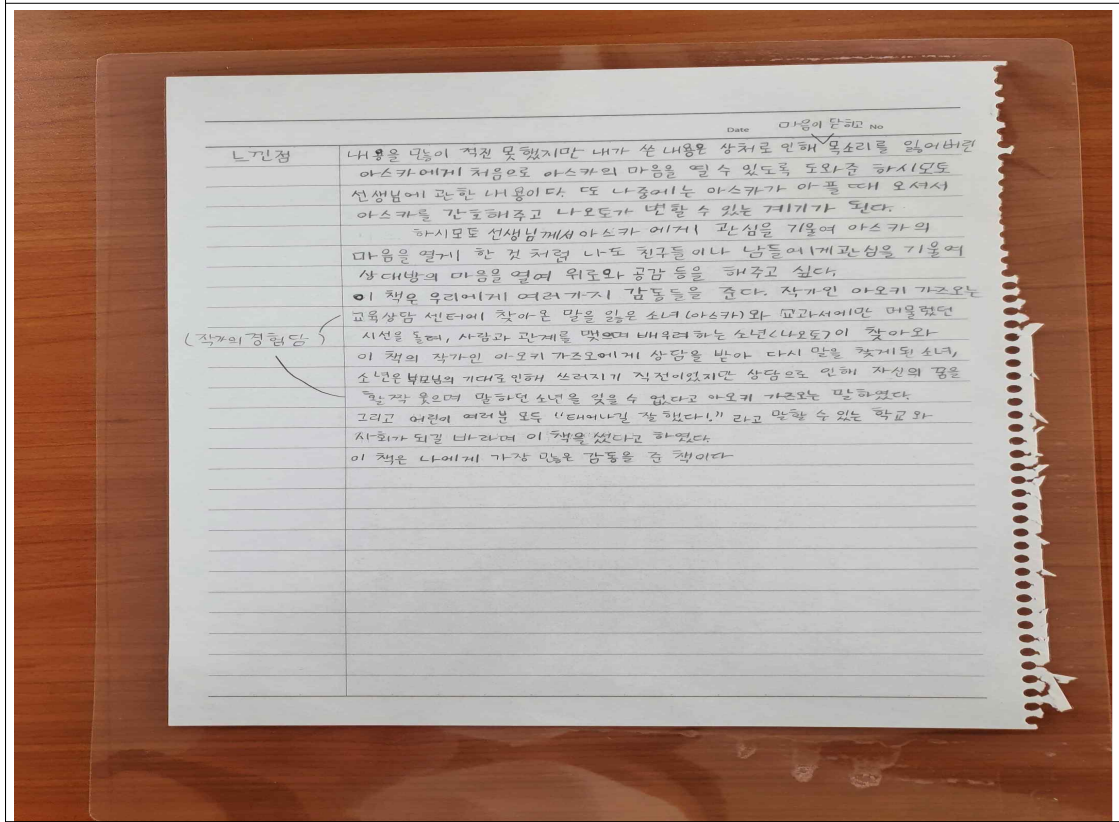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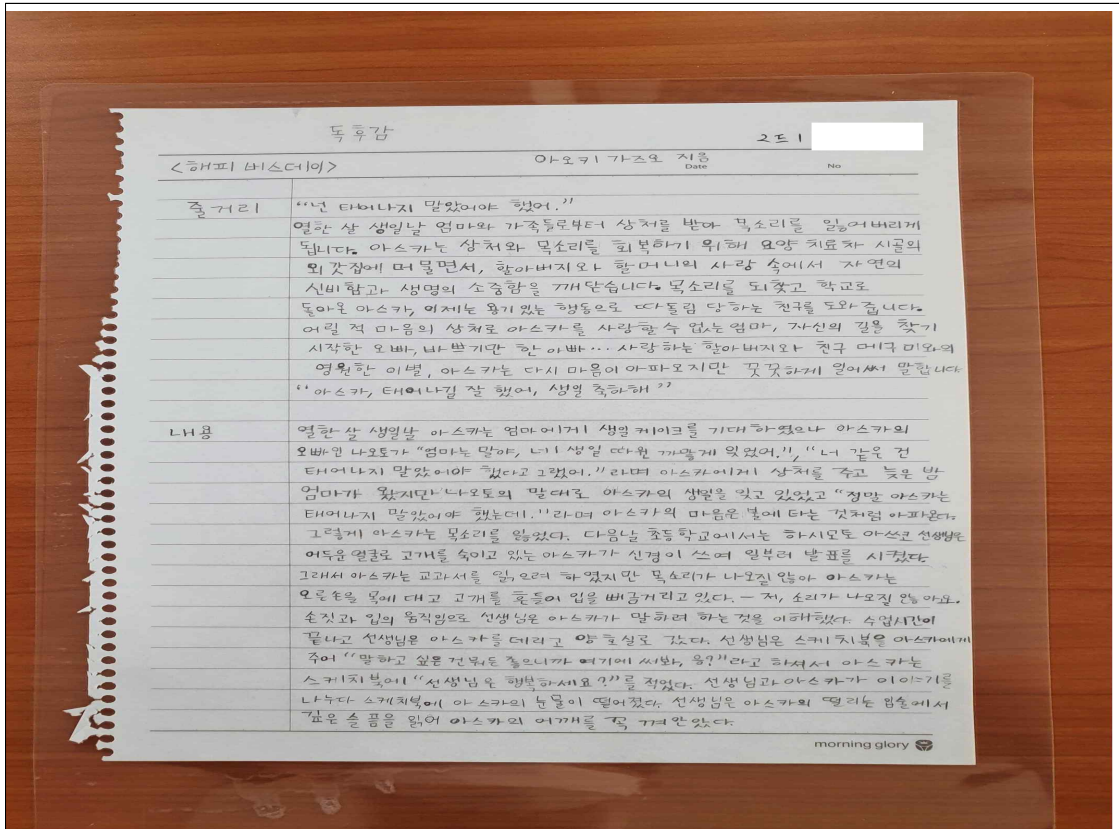
그저 평범하고 어리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해리포터에게 마법 세계로 가는 문이 열렸고 해리포터가 가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세계가 혼돈과 멸망에 빠진다는 말을 듣고 반강제적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 그 마법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별 볼 일 없던 해리는 마법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그와트 마법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격려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그저 평범한 학생에서 어느덧 마법 세계의 악의 무리와 맞서고 지킬 수 있는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해리포터는 즐겁지 않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가려고 했으나 꼬마 집에 요정 도비가 말하길 해리가 호그와트에 가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해리를 걱정하는 척 방법을 알려 준다면 함정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더즐리 가족 집에 가두려고 해리의 팔까지 부러뜨리며 더더욱 위험에 빠뜨립니다.

제 생각엔 해리포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강한 마법사인 볼드모트보다 친한 친구인 척 다가와 나중에는 친구를 괴롭히고 해치는 도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나쁜 친구들이 없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 같은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해피버스데이	아이키 가즈오: 지음 가토 미키: 그림 홍성민: 번역
-------------	----------------------------------

스마트 드론 전자과 2학년 1반 번
김 성

줄거리: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열한 살 생일날 엄마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스카는 상처와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해 요양 치료차 시골의 외갓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연의 신비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목소리를 되찾고 학교로 돌아온 아스카, 이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도와줍니다. 어릴 적 마음의 상처로 아스카를 사랑할 수 없는 엄마,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한 오빠, 바쁘기만 한 아빠...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친구 메구미와의 영원한 이별, 아스카는 다시 마음이 아파오지만 꾀꾀하게 일어서서 말합니다.

“아스카, 태어나길 잘했어, 생일 축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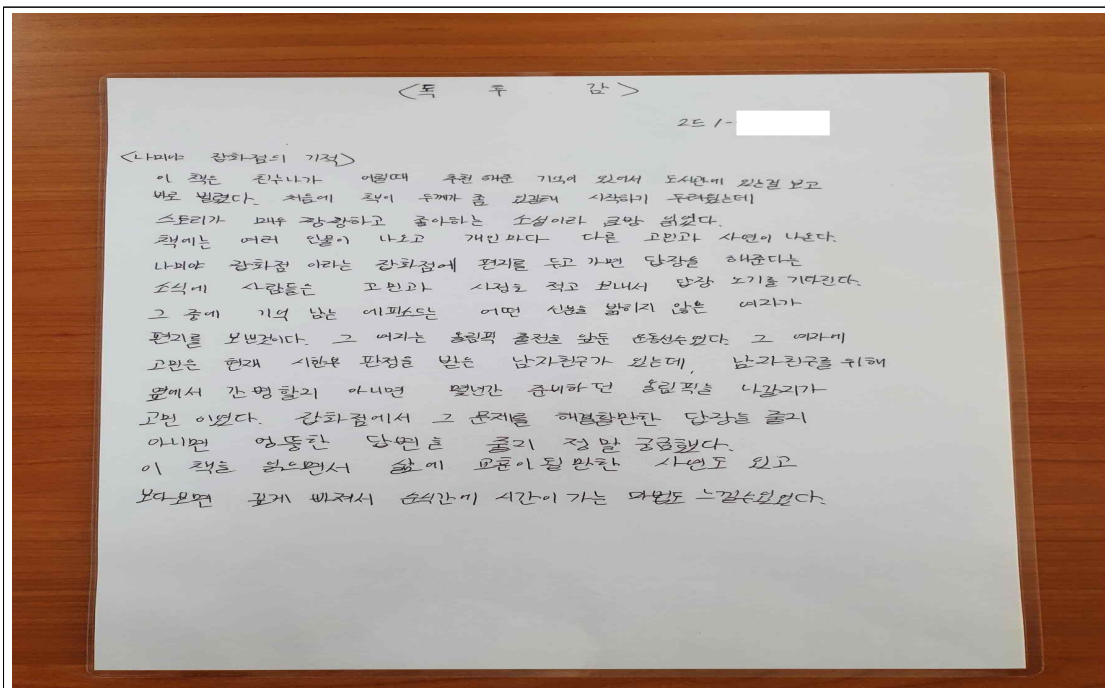
열한 살 생일날 아스카는 엄마에게 생일 케이크를 기대하였으나 아스카의 오빠인 나오토가 “엄마는 말야, 네 생일 따윈 까맣게 잊었어.”, “너 같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랬어.”라며 아스카에게 상처를 주고 늦은 밤 엄마가 왔지만 나오토의 말대로 아스카의 생일을 잊고 있었고 “정말 아스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아스카의 마음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파온다. 그렇게 아스카는 목소리를 잃었다. 다음날 초등학교에서는 하시모토 아쓰코 선생님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스카가 신경이 쓰여 일부러 발표를 시켰다. 그래서 아스카는 교과서를 읽으려 하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아스카는 오른손을 목에 대고 고개를 흔들어 입을 뻐금거리고 있다. - 저,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손짓과 입의 움직임으로 선생님ㅇ느 아스카가 말하려 하는 것을 이해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은 아스카가 말하려 하는 것을 이해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은 아스카를 데리고 양호실로 갔다. 선생님은 스케치북을 아스카에게 주어 “말하고 싶은 건 뭐든 좋으니까 여기에 써봐, 응?”라고 하셔서 아스카는 스케치북에 “선생님은 행복하세요?”를 적었다. 선생님과 아스카가 이야기를 나누다 스케치북에 아스카의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은 아스카의 떨리는 입술에서 깊은 슬픔을 읽어 아스타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내용을 많이 적진 못했지만 내가 쓴 내용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히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아스카에게 처음으로 아스카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 하시모토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다. 또 나중에는 아스카가 아플 때 오셔서 아스카를 간호해 주고 나오토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시모토 선생님께서 아스카에게 관심을 기울여 아스카의 마음을 열게 한 것처럼 나도 친구들이나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위로와 공감 등을 해주고 싶다.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들을 준다. 작가인 아오키 가즈오는 교육상담 센터에 찾아온 말을 잃은 소녀(아스카)와 교과서에만 머물렀던 시선을 돌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배우려 하는 소년(나오토)이 찾아와 이 책의 작가인 아오키 가즈오에게 상담을 받아 다시 말을 찾게 된 소녀, 소년은 부모님의 기대로 인해 쓰러지기 직전이 었지만 상담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활짝 웃으며 말하던 소년을 잊을 수 없다고 아오키 가즈오는 말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모두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와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고 하였다.

이 책은 나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준 책이다.



독후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스마트 드론 전자과 2학년 1반 번
나 공

이 책은 친구나가 어릴 때 추천해준 기억이 있어서 도서관에 있는 걸 보고 바로 빌렸다. 처음에 책이 두께가 좀 있길래 시작하기 두려웠는데 스토리가 매우 짱짱하고 좋아하는 소설이라 금방 읽었다. 책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고 개인마다 다른 고민과 사연이 나온다.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잡화점에 편지를 두고 가면 답장을 해준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고민과 사정을 적고 보내서 답장 오기를 기다린다. 그중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여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 여자는 올림픽 출전을 앞둔 운동선수였다. 그 여자의 고민은 현재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위해 옆에서 간병할지 아니면 몇 년간 준비하던 올림픽을 나갈지가 고민이었다. 잡화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답장을 줄지 아니면 엉뚱한 답변을 줄지 정말 궁금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삶에 교훈이 될만한 사연도 있고 보다 보면 깊게 빠져서 순식간에 시간이 가는 마법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날, 내 죽음에 네가
들어 왔다 생이완 로빈 지음
김종환 옮김

201

[illegible]

소에게 백만엔을 주어서 두 번째에 중금되는 애에게 돈을 주려 전해져서 괴롭힘 당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고도 말했다. 소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물려도 않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바준은 소의 자살을 20번 망해왔었다. 방해하면서 소와 아이바준은 가까워졌고
 소의 자살이유는 억압과 가족대우의 양계되었고 아이바준의 집에서 자고가는일이 많아졌다.
 이대보다는 소를 좋아하게 된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다. 아이바준과 소의이친분이
 는 이이치노 좋아하고있었다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불꽃놀이가 터져 버려나갔다
 아이바준과 이치노네가 함께 산을보러가 지내고있었다. 어느날 수수 있는일이 일년정도 놓아왔었다
 집에 가서 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갑자기 사라져야 할지 생각을 하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었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수명을 내놓을것을 후회하지 말라고했었고
 말하지 않았다고 보였다. 아이바준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한채로 있었고 사진은 아이바준을 들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아직마는 두로 이치노가 있었고 사진은 "이치노가 아이바준씨와
 데이트를 하기위해 아이바준을 사귀었던 모였어요." 하며 웃고 있음을하기위해 사진은 이치노네
 를 불러 주운을 하였고 아이바준에게 "자야, 뭐 머물거야?"라며 모국어는 말을 이치노씨가
 들어와서인지 그렇게 말 하였고 이치노씨의 얼굴은 빨개진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이바준
 은 사진에게 물어보는것이냐며 물려했지만 사진은 "다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되면 이치노씨를 떠날것수 없을것요."라며 비웃고선 사진도 사라졌다.
 근데 정말 돌린 말도 아니기때문에 이치노씨에게 다시는 집으로 오지 말라달라. 좋아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치노씨는 아이바준에게 "전 아이바준씨가 없으면 자살 할거예요!"라며 넘겨주고
 했고 그렇게 계속 만났다. 어느덧 수명이 몇몇밖에 안 남았고 이치노씨에게 온사게 이야기기와
 수명을 내놓을것을 말 했다. 알고보니 이치노씨도 수명을 맞바꿨었고, 이치노씨는 "아이바준씨에게는
 수명더할 아깝지 않다"라며 물려서 서로를 꼭 거역한다. 12 시였다. 천천히 눈이 갔었다. 갑자기
 눈이 떠졌고 시간은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었다. 생각했었지만 돌릴 뒤 회고한 시간도 기억과
 함께 이어받는 편지 모자였다. 만약 가일이 맞았다면 이치노씨와 아이바준이 시계를 사용
 하면 영원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 시간을 되돌리며 좋아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사진이 나타났고 사진은 "후회하지말라 했지만, 재미없어졌어요.
 온사게 주세요. 수명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말하고 이치노씨와 아이바준이 사랑하며
 보내는 일상을 즐기고 채이 끝이 나다 나는 이책을 읽었는데 책이 워낙이러나, 재미있다. 지극하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버스에서 책을 집어들어 읽었는데 약간 재미있는 책이었던것이라고
 느꼈다. 처음으로 책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고 솔직하게 버스에서 중 들었었다. 너무 재밌고
 책이 시간이 되다면 다시 읽고 싶은 책이다. 읽게 된 계기는 그냥 도서관을 놀러갔다가
 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제일 인기많은 책을 검색하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책이 떴고 줄거리와
 표지를보고 좋아 생각해서 읽게 되었다. 내가 만약 ~~이책~~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라도
~~이책~~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강동 앞산엔 장면은 ~~너무~~ 많고도 많았는데 ~~클이~~
 02라면 여기에만 한정된 않았지만 끝원에서 이치노씨와 아이바준이 dot자리에 두기
 정했더라도 자살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행복하게 수다를 떨던 모습이었다.

아이바순고

아이바준과

독후감: 어느 날, 내 죽음에 내가 들어왔다	세이카 료겐 지음 김윤경 옮김
--------------------------	---------------------

스마트 드론 전자과 2학년 1반 변
김 우

주인공은 ‘아이바 준’이라는 남자다. 그는 죽고 싶어 했고 크리스마스 날 사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사신은 아이바 준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다. 그런 사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대뜸 사신은 아이바 준에게 수명을 넘겨 달라고 권유했다. 그 대신 우로보로스 은시계를 넘겨준다고 하였다. 아이바 준은 제안을 수락했다.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보다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였다. 그리고 사신이 준 우로보로스 은시계는 평범한 은시계가 아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은시계였다. 무조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말 세세한 규칙이 존재했다.

- 수명을 대가로 지불한 소유자만이 이 우로보로스 은시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 사용법은 우로보로스 은시계를 손에 들고 되돌아가고 싶은 시각을 간절히 떠올리면 되는 것
- 최대 24시간 전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 한번 시간을 되돌리면 36시간 동안은 시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것
- 시간을 되돌리기 전의 기억은 소유주만 이어 갈 수 있는 것
- 시간을 되돌릴 때 소유주의 피부에 닿아 있던 사람도 예외적으로 기억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사신은 이렇게 제시한 뒤 3년 이후 수명과 우로보로스 은시계를 맞바꾸겠냐고 물어봤고, 아이바 준은 수락했던 것이다. 사신은 내일부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고 수명을 내놓은 걸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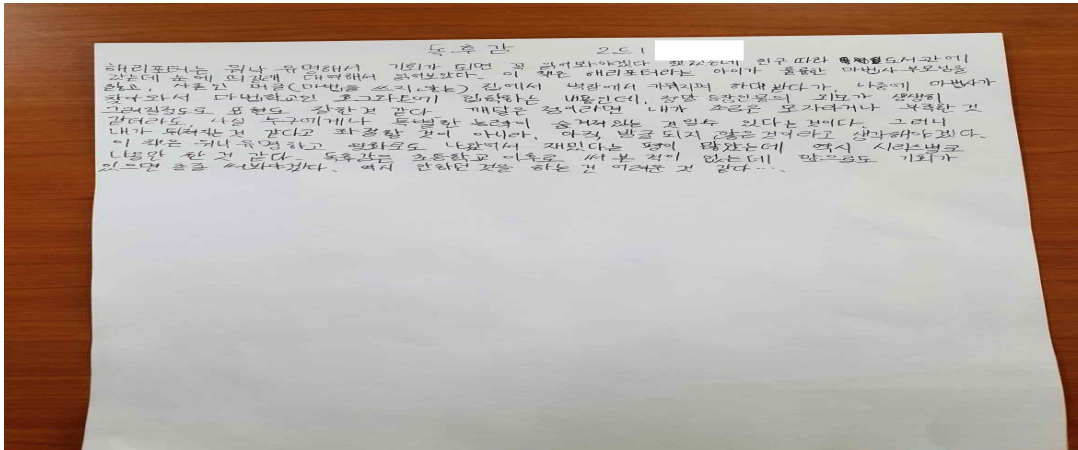
다음날 은시계를 시험해 보았고 결론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었다.

아이바 준은 시계를 어떻게 사용해 볼까 생각했다. 먼저 복권 당첨 번호를 외운 뒤 시간을 되돌려 당첨 번호가 같은지 시험했다. 당첨 번호가 달라졌다. 시간을 되돌리기 전과 순위가 바뀌어서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유일하게 결과가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주식이었고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바 준은 주식을 대신 구입해 주는 협력자를 찾았고 대신 대가로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이익금을 불렀다. 돈이 먼저 생기자 아파트 한 채를 빌렸다. 부모님께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부모님은 보증이니 되어 줄 테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졸업할 때까지 참았다.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독립은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그건 불과 몇 개월뿐 이었다. 똑같은 지루한 일상들이 반복되었고 사신과 거래하고 난 1년 후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언제 그칠지 궁금해서 일기예보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켜고, 일기예보가 시작하기 전까지 뉴스를 시청했다. 다음날이면 수명이 2년 이내로 접어드는 내게는 상관없는 정보들 뿐이었지만 딱 한가지 신경 쓰이는 뉴스가 있었다, ‘중학생 소녀가 다리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보도였다. 시체가 발견된 건 그날 저녁이었고 투신자살 같다는 뉴스였다. 그 다리는 사신과 내가 거래했던 다리여서 신경이 더 쓰였고 다리를 가보았더니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다. 한참을 내려보고 있는데 중학생들 무리가 걸어왔다. 처음에는 자살한 친구들인 줄 알았지만, 그 소녀들은 매우 기뻐하며 자살 현장을 찍으며, “드디어 사라져줬네.” “이제 두 번 다시 개 얼굴 안 봐도 되겠어”라고 떠드는 소녀들을 보며 분노가 솟구쳤고 시간을 되돌려 소녀의 자살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로보로스 시계를 이용해 24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다리로 뛰어갔고 소녀를 기다렸다. 소녀는 정말 예뻐다. 그리고선 소녀는 다리 경치만 보고선 사라졌다. 그 후로 소녀는 오지 않았고 복권번호처럼 미래가 달라진 것이었다. 아이바 준은 소녀가 또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였고 뉴스를 찾아보며 검색하였다. 그다음 날 뉴스에서 중학생 소녀가 다리에서 추락해서 사망하였다고 했고 아이바 준은 시간을 되돌려 다리에서 다시 소녀를 기다렸고 소녀가 나타났다. 아이바 준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표정이 좋지 않다며 말을 걸었고, 소녀와 말을 이어 나갔다.
아이바 준은 소녀가 자살하려는 이유를 안다며 소녀에게 백만 엔을 쥐여주며 반에서 중심되는 애에게 돈을 주며 친해져서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하라고 말했다. 소녀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울며 도망쳤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바 준은 소녀의 자살을 20번 방해하였다. 방해하면서 소녀와 아이바 준은 가까워졌고, 소녀의 자살 이유는 부모님과 가족 때문인걸 알게 되었고 아이바 준의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 이대로라면 소녀를 좋아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다. 아이바 준과 소녀 이치노세는 이미 서로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불꽃놀이도 가며 놀러다녔다. 아이바 준과 이치노세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덧 살 수 있는 날이 일 년 정도 남아있었다. 집에 가며 소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갑자기 사라져야 할지 생각하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었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사신이 있었다, 사신은 수명을 내놓은 것을 후회하지 말라,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이바 준은 아무 말도 대답을 못 한 채로 있었고 사신은 아이바 준을 끌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앞치마를 두른 이치노세가 있었고 사신은 “이치노세가 아이바 준씨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모르셨죠?

라며 웃었고 주문을 하기 위해, 사신은 이치노세를 불러 주문을 하였고 아이바 준에게 “자기야, 뭐 먹을거야?”라며 오글거리는 말을 이치노세가 들으라는 건지 그렇게 말하였고 이치노세의 얼굴은 빨개진 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이바 준은 사신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뭐라 했지만, 사신은 “다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치노세를 떨어뜨릴 수 없을걸요?”라며 비웃고선 사신도 사라졌다. 근데 정말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이치노세에게 다시는 집으로 오지 말아달라, 좋아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치노세는 아이바 준에게 “전 아이바 준씨가 없으면 자살할 거예요!”라며 넘어가곤 했고 그렇게 계속 만났다. 어느덧 수명이 며칠밖에 안 남았고 이치노세에게 은시게 이야기와 수명을 내놓은 것을 말했다. 알고 보니 이치노세도 수명을 맞바꿨었고, 이치노세는 “아이바 준씨에게는 수명 따윈 아깝지 않다.”라며 울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12시였다. 천천히 눈이 감겼다. 갑자기 눈이 떠졌고 시간은 오후 1시를 지나가고 있었다. 생각했다, 시간을 되돌린 뒤 경과한 시간도 기억과 함께 어어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만약 가설이 맞는다면 이치노세와 아이바 준이 시계를 사용하면 영원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 시간을 되돌리며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신이 나타났고 사신은 “후회하지 말라, 했건만 재미 없어졌네요. 은시계를 주세요. 수명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말하고 이치노세와 아이바 준이 사랑하며 보내는 일상을 끝으로 책이 끝난다.

나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책이 뭐 이러냐, 재미없다, 지루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버스에서 책을 집중하며 읽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재밌는 책이었던 거라고 느꼈다. 처음으로 책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고 솔직하게 버스에서 좀 울었었다. 너무 재밌는 책이고 시간이 된다면 다시 읽고 싶은 책이다. 읽게 된 계기는 그냥 도서관을 놀러 갔다가 책에 관한 관심이 생겼고 제일 인기 많은 책을 검색하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책이 떴고 줄거리와 표지를 보고 좋다, 생각해서 읽게 되었다. 내가 만약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라도 아이바 준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감동 받았던 장면은 너무나 많고도 많았는데 굳이 고르자면 여기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공원에서 이치노세와 아이바 준이 돛자리에 누워 잠깐이라도 자살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행복하게 수다를 떨던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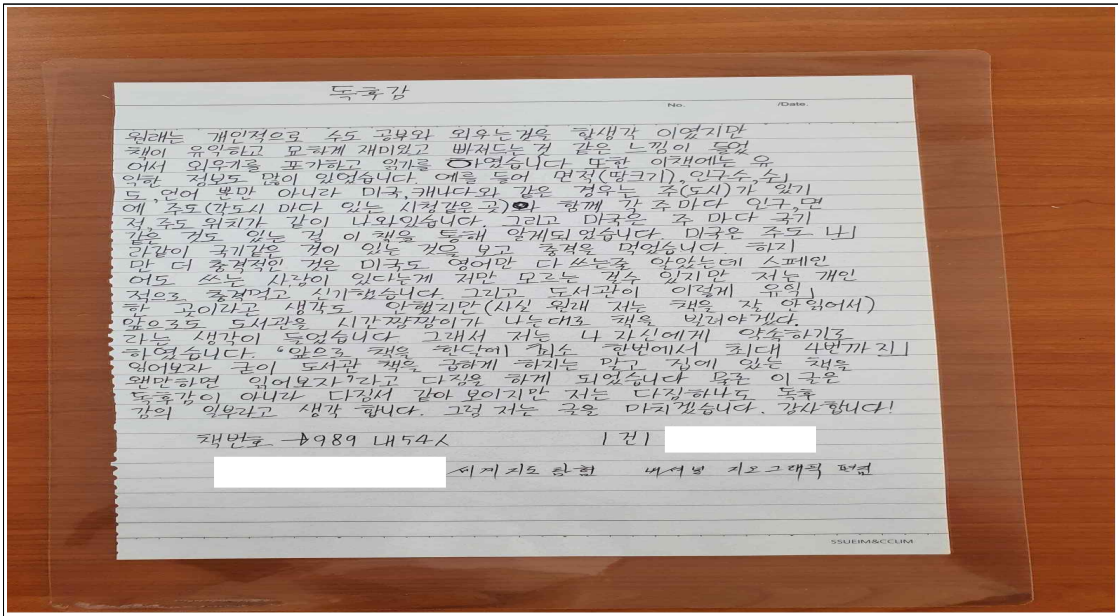
독후감: 해리포터

스마트 드론 전자과 2학년 1반 변
임 영

해리포터는 워낙 유명해서 기회가 되면 꼭 읽어봐야겠다, 했었는데 친구 따라 도서관에 갔는데 눈에 띄길래 대여해서 읽어보았다.

이 책은 해리포터라는 아이가 훌륭한 마법사 부모님을 잃고, 사촌인 머글(마법을 쓰지 않는) 집에서 벽장에서 키워지며 하대 받다가 나중에 마법사가 찾아와서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하는 내용인데, 정말 등장인물의 외모가 생생히 그려질 정도로 표현도 잘한 것 같다. 깨달은 점이라면 내가 조금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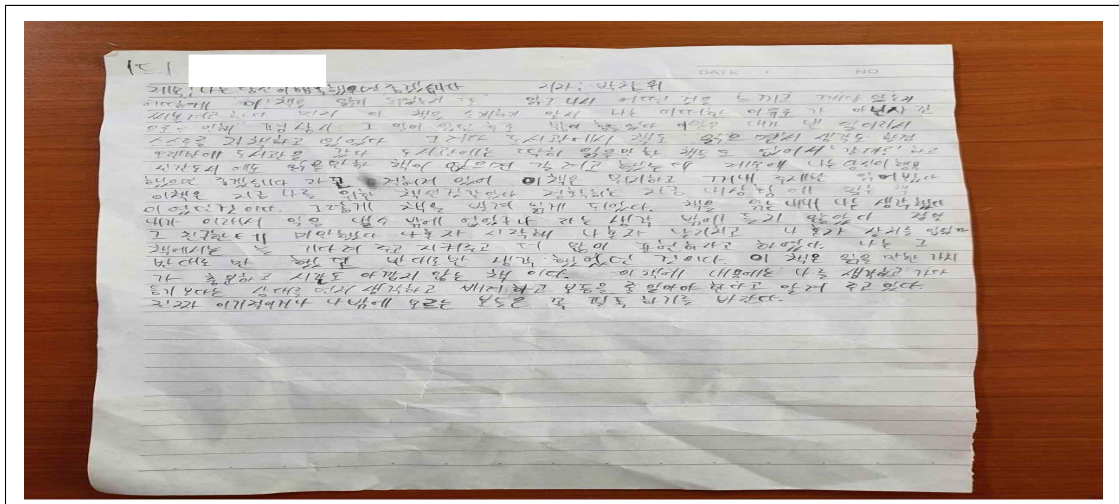
이 책은 워낙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와서 재밌다는 평이 많았는데 역시 시리즈별로 나올만한 것 같다. 독후감은 초등학교 이후로 써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종종 써봐야겠다. 역시 안 하던 것을 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



독후감: (World Atlas) 세계지도 탐험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 편집
----------------------------	-----------------

건축 인테리어과 1학년 1반 김 훈

원래는 개인적으로 수도 공부와 외우는 것을 할 생각이었지만 책이 유익하고 묘하게 재미있고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외우기를 포기하고 읽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유익한 정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땅 크기), 인구수, 수도, 언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주(도시)가 있기에 주(각 도시마다 있는 시청 같은 곳)와 함께 각 주 마다 인구, 면적, 주도 위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 마다 국기 같은 것도 있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주도 나라 같은 국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도 영어만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스페인어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만 모르는 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먹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이렇게 유익한 곳이라곤 생각도 안 했지만 (사실 원래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서) 앞으로도 도서관을 시간 쪼뼔이 나는 대로 책을 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에게 약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책을 한 달에 최소 한 번에서 최대 4번까지 읽어보자. 굳이 도서관 책을 급하게 하지는 말고 집에 있는 책을 웬만하면 읽어보자.'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글은 독후감이 아니라 다짐서 같아 보이지만 저는 다짐 역시도 독후감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후감: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박찬위
--------------------------	---------

스마트 드론 전자과 1학년 1반 권
배 수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또 읽고 나서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써 보려고 한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나는 어떠한 이유로 가 아닌 사건으로 인해 평상시 그 일이 있던 후로 많이 힘들었다. 이 일은 내가 낸 일이라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면서 생각도 할 겸 오랜만에 학교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는 딱히 읽을 만한 책들도 없어서 '갈까?'하고 신간 도서에도 읽을만한 책이 없으면 갈려고 했는데 제목에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 이 책은 뭐지 하고 꺼내 주제만 읽어봤다. 이 책은 지금 나를 위한 책인 것 같았다. 정확히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책이었던 것 이다. 그렇게 책을 빌려 읽게 되었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래서 일을 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했다. 나 혼자 시작해 나 혼자 난리치고, 나 혼자 상처를 입었다. 책에서는 늘 기다려 주고 지켜주고 더 많이 표현 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 반대로만 했고, 반대로만 생각했었던 것 이다.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시간도 아깝지 않은 책이다. 이 책에 내용에는 나를 생각하고 가다듬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진짜 이기적이거나 나밖에 모르는 분들은 꼭 필독하기를 바란다.